

민선 5기 1년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듣는다

“美 실리콘밸리처럼 광산업밸리 만들것”

강운태 광주시장은 취임 1주년을 앞둔 22일 “지난 1년간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남은 기간 동안 광주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아시아 문화허브도시 그리고 첨단과학산업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모든 것은 때가 있다”며 “민주화를 향한 광주시민의 열정을 창조적 에너지로 결집, 멋진 도시 광주를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취임 이후 1년간 시정을 평가한다면. ▲평가는 시민의 몫이지만, 매일 기도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며 달려왔다. 돌아해보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틀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민을 향한 시장의 진정성이 시민에게 다가가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 소통을 강조해왔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의 경우 총력을 다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참여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일부에서 특혜 다 뭐다 시비가 불어 정말 야속하고 서운했다.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선수촌 재건축사업은 모든 대기업을 참여를 거부했던 것이 사실이다. 몇 날 며칠 고민과 기도를 한 끝



U대회 선수촌 특혜 운운 소통부족 절감

투서·음해는 독약 반드시 뿌리 뽑겠다

에 현대건설과 접촉했고, 어렵게 성사시켰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전남도청 별관문제, 새 야구장 건설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속속 해결되고 있다. 민선 5기에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들을 말해달라.

▲새로운 많은 사업이 이미 진행중이다. 해외 투자유치가 대표적이다. 광주에서 만들어진 LED(발광다이오드)가 ‘세계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미국과 러시아, 이태리 등 해외시장을 뚫어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다. 복지의 시작과 끝도 일자리, 경제성장의 시작과 끝도 일자리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좋은 기업체가 생겨야 하고, 그러려면 광주에서 장사가 잘돼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온다.

다행히 광주에는 광산업이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우리는 포토닉스밸리(Photonics valley)를 만들어야 한다. 벌써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비롯한 세계 최고수준의 광산업 관련 연구소와 문화 콘텐츠 기업들이 광주에 속속 들어오고 있다.

-최근 시청 내부에서 갈등과 알력이 불거지고 투서나 음해성 문서가 나돌면서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다.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자가 결정된 총인 저감 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 조직 내부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는 것은 경위야 어쨌든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음해성 투서나 근거 없는 유언비어는 조직을 썩먹는 독약이며, 공격이다. 투서나 유언비어 유포 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 동시에 소통의 길을 확고히 하겠다. 시청 조직원 가운데 시장을 만날 일이 있다면 언제라도 비서실장에게 얘기하면 최우선적으로 만나겠다. 시장과 직접 대면을 꺼리는 사람들은 나만 보는 메일(cleank21@hanmail.net)로 연락을 하면 조치를 하겠다. 실제로 한 달 전쯤 여직원 두 명이 이 메일로 하소연을 해왔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조치했다. 편지를 보내도 된다. ‘시장님 진전요망’이라고 써 놓으면 비서실에서 개봉하지 않고 직접 보도록 하겠다.

-이러바 측근인 캠프 인사들과 공무원 조직 간에 마찰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캠프 사람’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캠프 사람이) 있다고 믿는 것은 분명 착각이다. 혹시 누군가 캠프 사람이라고 행세한다면 그는 이상한 사람이다. 단언컨대 캠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측근이 있다면, 시청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공직자가 바로 측근이다. 혹여 측근이라는 사람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언제라도 제보를 해달라. 공개적으로 엄격하게 다스리겠다.

-민선5기 1년이 지났다. 현재 조직운영에 만족하는지.

▲조직구성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 아래서는 소신껏 조직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외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싶다. 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따오는 것은 레드오션(Red Ocean-경쟁이 치열한 부문)이다. 이미 정해진 재원에서 얼마나 빼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현재의 정치권력이 바뀌지 않는 한 예산을 절대로 많이 받을 수 없다. 나중에 알고 보면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구도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눈을 밖으로 돌리면 블루오션(Blue Ocean-경쟁이 적은 부문)이 많다. 해외 시장개척이 대표적이다.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세계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다만, 건설분야는 다소 산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계약문제만 해도 여기저기 소관부서가 많고, 책임소재도 모호하다. 또 중앙부처와도 관계가 있어 다소 복잡한 부분이다.

정무분야 보완... 해외시장 개척 눈 돌려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 유엔과 협조

정무분야의 경우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현재의 조직 구도로는 인원에 비해 일이 너무 많다는 평가가 있다. 의회와의 관계나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 시청 내 조직과의 관계 등 소홀한 부분이 많다.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시스템도 잘 가동되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앞으로 정무조직을 보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민선 5기 남은 기간 동안 하고 싶은 일은.

▲광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3가지 축을 확고히 마련해 놓고, 여기에 지붕을 씌울 수 있도록 하겠다.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유엔과 협조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또, 광주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허브(Hub)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앞으로 3년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첨단 과학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특구를 기반 삼아 포토닉스밸리를 조성하겠다. 무엇보다도, 광주를 멋진 도시로 만들겠다. 현장에도 많이 가고, 소통도 많이 하겠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민주화를 향한 광주시민의 열정을 창조적 에너지로 결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

-훗날 민선 5기가 어떤 평가를 받기를 바라는지.

▲역사 속에서, 민선 5기가 광주시와 시민의 잠재역량을 꽃피운 ‘광주의 르네상스기’라고 기록되었으면 한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민선 5기 1년 광주시에서는

▲ 2010.06.07 민선 5기 인수위 출범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강운태 광주시장의 민선 5기 밑그림을 그릴 제11대 광주시장직무인수위원회가 이날 출범했다.

▲2010.07.01 강운태 광주시장 취임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 취임식이 이날 오전 광주 빛고을 체육관에서 지역 정·재·학계 관계자, 일반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 시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향후 4년간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시장 목표로 ‘광주 르네상스’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0.12.15 기아타이거즈 새 야구장 투자 협약

광주시와 기아타이거즈가 이날 광주시청에서 야구장 건립 투자협약식을 갖고 기아타이거즈가 내년부터 3년 동안 연간 100억원씩 투자하기로 했다.



기아는 투자 조건으로 25년간 그라운드를 비롯한 구장 임대권 및 부대시설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새 야구장은 내년 5월쯤 착공장 철거를 시작으로 착공해 2013년 말 완공 예정이다.

▲2010.12.30 옛 도청 별관 문제 일단락

강운태 시장이 송년 기자회견을 통해 옛 전남도청 별관 부분보존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24m 강구조물 보존방식’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2년 이상 지역 내 극심한 갈등과 마찰을 빚었던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가 일단락 됐다.

▲2011.04.30 U대회 선수촌 시공사 선정

2015년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재건축과 관련해 이날 화정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민선 5기 최대 현안이기도 했던 선수촌을 도시재생과 결부시켜 구도심 내 화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조성하기로 하면서 국제대회와 도시재생을 연계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11.06.09 2조원 규모 해외투자유치 협약 체결

강운태 시장은 취임한 뒤 6차례 시장개척 및 해외투자유치에 나서 109개 국내·외 업체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중 32개 업체가 실제 투자해 MOU 실현율이 29.4%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조원 규모로 1800억원이 이미 투자됐다.



2011 GOHEUNG SUNJUNG MUDLYMPIC "고흥선정 머드림픽"에서 함께 보고·즐기고·추억을 간직하세요!! 2011.7.16(토)~17(일) 고흥군 남양면 선정 해안방풍림 앞 갯벌 머드 풋살 | 머드 씨름 | 머드 균형줄다리기 | 머드 전통뽕배&갯 -보드레이싱 | 머드 자전거타기 참가신청: 2011. 7. 13(수)까지 접수방법: 홈페이지 사전 방문접수 문의처: 고흥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담당 Tel. 061-830-6726